

장백산천지

제 257 호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죄악의 핵심 추궁해야", 캐나다 국회의원 장쩌민 고소 성원

[밍후이 기자 잉쯔 오타와 보도] 최근 중국에서 만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시민들이 검찰원, 법원에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캐나다 국회의원 세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인권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죄악의 핵심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회의원 롭 앤더스(Rob Anders)는 파룬궁 박해자들은 사리사욕이 가장 심하고, 사람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의 최저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6월 11일,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앤더스 의원은 저우융캉에 대한 심판은 부패문제만 건드렸지만, 양파껍질을 벗기듯 파룬궁을 박해한 검은 내막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한 겹씩 검은 내막을 파헤쳐 인권유린, 살인, 고문과 일체 죄악의 핵심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장본인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앤더스 의원은 중국에서는 응당 자료 저장고를 만들어 벌어



캐나다 국회의원 롭 앤더스

진 모든 박해 사례를 수집해서 기록해야 하며, 장쩌민과 그의 망나니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앤더스 의원은 "피해자들이 고소함으로써 이런 폭군은 인권상해죄로 곧 추궁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가장 부패하고, 사악하며, 독재와 탄압이 가장 심한 사람을 추궁하고, 그가 저지른 죄를 가려 박해에 대한 사법

적인 규명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을 침해한 자들이 빼앗은 것은 재물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정직과 전통도덕이라며, 박해자들이 저지른 짓은 인간의 도덕을 벗어난 믿기 힘든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앤더스 의원은 언젠가는 중국의 도덕적 양심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존(Wladyslaw Lizon) 국회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리존 의원은 장쩌민을 고소한 대륙의 파룬궁 수련생이 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 "이것은 거대한 힘입니다. 비록 시동을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장래에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디 스그로(Judy Sgro) 국회의원은 "박해 원흉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밍○후이○단○신



6월 말, 베이징 거리의 곳곳에서 '전 세계는 장쩌민을 심판한다'는 표어가 눈에 띄었다.

● 5월 말부터 6월 25일까지 파룬궁 수련생 및 가족 2만 2천명이 전중공 두목 장쩌민을 고소했고, 중국 최고검찰원에서 입건하고 추궁할 것과 파룬궁에 대한 박해 운동을 벌인 원흉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독촉했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내에 장쩌민 고소 안건이 또 1만 3천여 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베이징 거리의 곳곳에서 '전 세계는 장쩌민을 심판한다'는 표어를 볼 수 있다.

● 2015년 6월 25일, 미국 제 114 회 국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공동으로 343호 결의안을 발기하였다. 그들은 중공이 즉시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범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고, 중공 장기이식계통에 대해 믿을만하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미 16년간 지속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시 정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 2015년 6월 21일,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은 매년마다 개최되는 오사와 다문화 축제 대행진에 요청을 받고 참가해 시민들의 사랑과 환영을 받았다.

길림 구태 노동교양소, 장칭쥔을 살해한 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간략)

(밍후이왕 통신원 길림성보도) 2014년 11월 27일, 전 길림 구태 노동교양소(현재 약물중독 치료소로 고침)의 세 사람이 훈춘시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 장칭쥔(張慶軍)의 아들 장하이보를 찾아와 구태 노동교양소에서 장칭쥔을 살해 한데 대해 사죄하고, 배상금 50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이 세 사람은 배상금으로 구태 노동교양소에서 12만 5천 위안을 내고 성 사법청에서 12만 5천 위안을 내 합계 25만 위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장하이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또 5만 위안을 더 줄 수 있다 고 했다. 장하이보가 여전히 말하지 않자 또 40만 위안으로 증가했다. 장하이보는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자들은 채소시장의 장사꾼처럼 이를 악물면서 “우리들의 최대 배상 권한은 50만 위안이요. 이제 만족 할 수 있겠지요?”라고 말했다.

장하이보는 생각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관리하는 일로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6년 동안 파룬궁수련생들이 부친의 억울한 사망안건을 끊임없이 보도하여 많은 세인들이 구태 노동교양소에서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고, 나의 부친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흉수들도 죄행을 인정하니 나의 부친의 억울한 사망안건도 결말을 지을 때가 됐다. 이 피값은 마땅히 장쩌민 하고 결산해야 한다!’ 이리하여 장하이보는 “네!”하고 대답을 했다. 세 사람은 돌아가 상급에 회보하고 소식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반년이 넘었지만 오늘까지 장하이보한테 한 마디 소식도 없다.

66세인 장칭쥔 노인은 도문시 석현진 파룬궁수련생이다. 2010년 10월에 구태 인마허 노동교양소로 납치되어 7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현재 시신은 여전히 장의사의 냉동고에 있는데, 노동교양소가 보관비용을 하루에 백 위안을 감당하고 있다.

장칭쥔은 도문시 석현진 10위에서 살고 있었다. 장칭쥔과 아내 장수화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생활이 어려웠다. 다행히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고,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었으며 매 순간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해 이로부터 신체가 튼튼해지고, 생활이 즐거웠으며, 근무지에서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선량했다.

하지만 바로 이처럼 훌륭한 부부는 1999년 7월부터 중공이 파룬궁 ‘진선인(真善忍)’에 대해 박해를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현지 중공 정부 관원과 경찰들의 불법 강탈, 납치, 불법감금 등의 박해를 당하고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다. 그리고 노동교양소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박해를 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된 후 이 몇 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불법체포, 가택수색, 구류를 당했으며 세뇌반에 강제 감금되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는 신앙권리를 박탈당했다.

2010년 9월 10일, 도문시 석현진의 경찰 두 명(그중 한 사람은 김학문, 조선족 20세경)은 속임수를 써서 막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칭쥔을 경찰차에 실어 송림촌(松林村) 양로원에 위치한 세뇌반에 감금하고 박해를 감행했다. 국보대대, 정법위원회 및 파출소, 가도 등의 몇십 명 악인들은 각종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선인(真善忍)’ 신념을 포기하라고 장칭쥔을 핍박했다.

열흘 후 ‘610’의 지시에 의해 장칭쥔은 세뇌반에서 시 공안국 안산구치소에 감금되고 박해를 당했다. 중공 악인은 또 각종방법으로 장칭쥔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뒤따라 ‘610’은 거리낌 없이 장칭쥔에 대해 노동교양 박해를 감행했다. 시 국가보안대 대 부대장 저우홍(周宏)이 나서서 10월 22일에 장칭쥔을 극히 악명이 높은 구태 인마허 노동교양소로 압송해 박해를 가했다.

장칭쥔은 구태 인마허 노동교양소에서 7일 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장칭쥔의 가족이 노동교양소에 찾아 갔을 때 장칭쥔의 머리 부위에는 상처가 있었다. 노동교양소 측은 장칭쥔

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했고, 정상적인 사망에 속한다고 말했다. 가족은 노동교양소측을 향해 관련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또 당시 당직을 선 경찰, 의사 그리고 장칭쥔과 한 감방에 있던 사람을 만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교양소 소장은 가족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으며 다만 검찰에게 보일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가족은 22일부터 30일까지의 감시 녹화 기록을 보자고 요구했지만 노동교양소에서는 감시녹화기가 고장났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 수련생은 정의변호사를 청해 법정에 고소했고, 북경변호사도 정의적인 법의(法醫)를 청해 상처를 검사하고 확인하려고 했으나 ‘610’이 나서서 협박하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물러나고 소송료를 돌려줬다. ◇

국장은 대법제자를 보호하고 관직 두번 승진

나의 직장의 원래 국장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진상을 명백히 알고 대법 제자를 보호했었다. 나는 이전에 그의 집 문에 파룬궁이 박해 받은 진상을 이야기한 《풍우천지행(风雨天地行)》CD를 불려 놓았는데 그들 가족 3식구는 그날 저녁에 다 보았다. 그의 아내는 내가 그녀에게 준 《전법륜(转法轮)》을 줄곧 서류대에 꽂고 있었다. 아이의 동학이 보고 물으면 그의 아들은: 이 책은 아주 잘 썼습니다 고 말했다. 온 가족은 진상을 명백히 알고 모두 복 받았다.

여기에서 다만 남자 주인만 이야기하자. 내가 류랑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지 2년 후 나는 그를 찾아 직장에 출근하겠다고 요구하자 그는 당시 바로 응답했다. 그리고 나에게 어느 부문에 가겠는가고 묻고는 판공실 주임을 찾아 나의 사업을 배치하도록 했다. 당시 당위서기는 그래도 막으려고 했지만 말하려다 멈추었다. 당일 오후 나더러 출근하라고 통지했다. 이 국장은 대법 제자를 보호하고 복이 잇따랐다. 얼마 안되어 부현장이 되고 (그는 경력이 부족했다) 얼마 안되어 또 시국에 전근되어 부국장 직을 맡았다. 일년 내에 두번 승진하자 일부 사람은 그는 어찌되어 이렇게 순리로운가고 생각했다. 기실 모두 대법을 선으로 대하여 얻은 복이며 지금 그들 온 가족은 여전히 진상 자료를 보고 있다 ◇